조계종 기획실장 정문 스님 임명

사회부장엔 진각 스님


정문 스님


진각 스님

조계종 새 기획실장에 정문 스님(前사회부장)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4일 기획실장 정문 · 사회부장 진각(前교육부장) · 불교신문사장 초격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은 공석이 됐다.

기획실장 정문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원, 연지암 · 임허사 · 보경사 주지,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에서 수학하고, 해인사 사회국장,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포교국장, 조계종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금산사 주지후보 성우 스님 추대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16대 주지후보에 현 주지인 성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금산사는 8월 16일 경내 보제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16대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학림사 주지 일원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산중총회는 49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산중총회 직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원회(위원장 종훈)는 성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성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성원 속에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투명화, 효율적인 종무행정, 전주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건립에 따른 인재등용, 포교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 각 말사 특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서 8.15법회… 침체된 분위기 속 '평화 발원'

광복 72주년 맞아 불교계 행사 잇따라

종단협 · 민추본, 평화기원 법회
南北 경색으로 합동발원문 무산
조계종, 대북특사 파견 검토 주문
공동선실천협, '평화 기도회' 봉행



8.15 광복 72주년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 봉행 모습.

8.15 광복 72주년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최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광복절 행사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 북미와 당국 간 평화적 대화와 해결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가 8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은 "현재 북미 간 공방은 이전의 위기들과 달리 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임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8월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한의 반발과 맞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국민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난 집 속 살림살이와 같다'며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 표현하셨다. 아울러 정인정과(正因正果)라 했다"면서 "평화의 결과를 얻으려면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한다. 온 국민이 마음 모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삼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광복 72주년을 맞는 오늘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일본은 하루가 멀다하고 역사왜곡 시도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바른 역사로써 미래를 열어가야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매년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불교가 함께 채택한 합동발원문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이날 자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만청 스님, 대각종 총무부장 범상 스님, 진각종 사회부장 덕운 정사, 조계종 사회국장 해량 스님, 김삼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석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광복절을 계기로 대북특사 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은 8월 14일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해야할 광복 72주년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반도는 민족 참화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전쟁 위기가 감돈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군사적 방식은 결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존과 상생, 합심의 정신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극으로 치닫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주와 같다"고 언급하며 "북미 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또한 하루빨리 관련국들이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미 갈등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8.15 광복절을 계기로 대북특사 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쟁을 방지하고 광복 이후 쌓아온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우리 민족이 공존과 상생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합심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교계에서도 광복절 행사가 잇따랐다. 부산 6대 종교지도자들이 광복을 기념하며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공동선실천협의회)는 8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서 '광복 72주년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며 남북 평화 통일 및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도회에는 회장 정여 스님, 김계춘 신부,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72년 전 광복의 기쁨으로 행복했던 우리 선조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화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 하성미 기자

근대불교문헌 10종 英譯 완간

조계종 영역편찬위, 9월 12일 봉정법회

경허집 · 백교회통 · 각해일륜 등
2013년부터 5년간 번역 진행
국내외 전문 번역자들 동참해



한국 근대불교 대표 문헌 10종이 영어로 번역돼 세계에 배포된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편찬위)는 오는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 완간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금과 종단 예산으로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영역 · 발간된 문헌은 △〈백교회통〉(이능화 저, 정단비 역) △〈근대한국불교개혁론〉(한용운 외, 박포리 역) △〈근대한국불교논설집〉(최남선 외, 김성욱 역) △〈경허집〉(경허 저, 존 조르겐슨 역) △〈조선불교사고〉(김영수 저, 토니오 푸기오니 역) △〈조선탑파의 연구〉(고유섭 저, 이승혜 역) △〈근대한국불교시선〉(한용운 외, 데이비드 맥캔 역) △〈각해일륜〉(용성 저, 서정형 역) △〈불자필람〉(최취허 · 안진호 저, 영성준 역) △〈인명입정리론회석〉(박한영 저, 함형석 역) 등 총 10종이다.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은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국내외 도서관과 저명학자들에게 배포되며, 전자책을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편찬위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진광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한국전통사상총서'의 정신을 계승한 사업"이라며 "근대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헌의 영역 출판은 한국불교사에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은 3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교계 주요내빈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및 정각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종헌종법 불태운 스님들 징계 나선다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 관련 명예훼손 등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교계 안팎에서 열리는 시위 · 집회 퍼포먼스에 대해 총무원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회의실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와 관련,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강력 규탄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퍼포먼스를 실시한 관련자를 호법부로 등원조치해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갑을 찬 이미지를 합성해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효신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뒤흔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도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선거법 관련 퍼포먼스를 '종헌종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할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 정한 규범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간단히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이 집회에 참여한 스님들을 사진으로 채증하고, 호법부 등원과 징계를 운운하며 집회참여를 방해했다"면서 "집회방해 목적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및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여러 조치를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